

현안과제연구

# Issue Report

2016. 08. 18

## 충남의 농가경제구조와 정책방안

이관률

충남발전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 krlee@cni.re.kr

본 연구의 목적은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2015)”를 활용해 지역별 농가소득의 통계적 차이와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요 약

#### CONTENTS

##### < 요 약 >

1. 서론
2. 조사농가의 일반특성
3. 농가소득과 결정요인분석
4. 요약 및 정책방안

-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의 표본 수는 2,600호인데, 이는 전국 농가수 1,088,542호(2015년 기준)의 0.24%임. 따라서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활용할 때는 객관적인 통계량이 제시되어야 함.
- 본 연구의 주요내용인 농가소득의 지역별 차이,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 그리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충남의 농가소득은 다른 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따라서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농가소득이 전국의 몇 등이다 혹은 어느 지역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다만 충남의 농외소득은 경기와 제주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분석이 되고 있음.
-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동물, 농외임금, 축산물, 공적보조금, 비경상소득, 채소, 특작 및 채소, 과실, 미곡, 농업피해보상금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농가소득과 농가소득의 결정요인 분석을 바탕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해 보면 다음과 같음.
  - 논벼의 영농여부는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논벼에 대한 정책에서 채소, 특작, 과실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농외소득을 증진하기 위해서 농촌지역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 아일랜드 RSS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해야 할 것임.
  - 대동물과 축산물에 대한 정책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고, 농외소득 중 제조업 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산물가공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임.
  - 공적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건의와 논리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농작물피해보험에 대한 유인을 제고해야 할 것임.
  - 가공중심의 6차산업화정책에서 탈피해 직판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업서비스(농촌관광)와 음식숙박(농가맛집) 등이 강조되어야 할 것임.

- 통계청은 매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공포해 오고 있음. 최근 발표된 자료는 2015년 조사결과로 전국의 2,600농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 조사의 주요내용은 농가소득, 가계지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되어 있음.
-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종 정책을 수립·추진하기도 함.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 추진한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기도 함.
  -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전국의 농가수는 1,088,542호(2015년 기준)인데, 이중 2,600호를 표본(전체 농가의 0.24%)으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라는 것임.
- 그러므로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객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사된 표본 값을 그대로 사용하면 안되고, 객관적인 통계량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 “A지역 농가소득은 얼마고, B지역 농가소득은 얼마이기 때문에 A지역의 농가소득이 더 높다”라고 할 수 없음.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통계량 값이 제시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발표된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를 활용해 9개 지역별로 농가소득의 통계적 차이와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지역별 빈도차이 분석을 위해서는  $\chi^2$ -test를, 평균 차이분석을 위해서는 분산분석을, 그리고 농가소득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도록 함.

- 한편 본 연구에서는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의 표본인 2,600호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9개 시도의 표본인 2,469호만을 대상으로 하고자 함.
- 왜냐하면 서울을 비롯한 7대 대도시와 세종시의 경우는 표본의 크기가 최대 25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임.
  -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의 표본의 수와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대상자료는 <표 1>과 같음.

<표 1> 농가경제조사와 분석대상자료

(단위: 호, %)

구분	모집단		농가경제조사		표본의 비중 (B/A)	분석대상자료	
	농가수 (A)	구성비	농가수 (B)	구성비		농가수	구성비
전체	1,088,542	100.0	2,600	100.0	0.24	2469	100.0
서울	3,912	0.4	3	0.1	0.08	—	—
부산	8,069	0.7	23	0.9	0.29	—	—
대구	16,572	1.5	16	0.6	0.10	—	—
인천	13,082	1.2	21	0.8	0.16	—	—
광주	12,037	1.1	14	0.5	0.12	—	—
대전	9,425	0.9	10	0.4	0.11	—	—
울산	12,384	1.1	25	1.0	0.20	—	—
세종	6,571	0.6	19	0.7	0.29	—	—
경기	126,682	11.6	296	11.4	0.23	296	12.0
강원	73,085	6.7	253	9.7	0.35	253	10.3
충북	74,609	6.9	250	9.6	0.34	250	10.1
충남	132,011	12.1	289	11.1	0.22	289	11.7
전북	100,360	9.2	290	11.2	0.29	290	11.8
전남	150,155	13.8	332	12.8	0.22	332	13.5
경북	184,640	17.0	334	12.9	0.18	334	13.5
경남	131,457	12.1	272	10.5	0.21	272	11.0
제주	33,491	3.1	153	5.9	0.46	153	6.2

### 1) 농가유형

- 농가유형은 크게 전업농가와 1종 겸업, 그리고 2종 겸업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전체 조사대상 농가 2,469호 중에서 전업농가는 1,169호(47.4%)이고, 1종 겸업농가는 629호(25.5%), 그리고 2종 겸업농가는 671호(27.2%)임( $\chi^2=45.472$ , prob=0.0001).
  - 전업농가의 비중을 보면, 경북(56.9%)과 전북(50.3%)은 전업농가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겸업농가의 비중이 37.3%에 불과함.
- 따라서 지역적으로 비교해 볼 때, 경북과 전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업농가의 비중은 높다고 할 수 있고, 제주는 상대적으로 겸업농가의 비중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2) 주부업농가

- 주부업농가의 형태는 크게 주업농가(전문농가, 일반농가)와 부업농가, 그리고 자급농가로 구분됨. 전체 농가 중 전문농가는 833호(33.7%)이고, 일반농가는 815호(33.0%), 부업농가는 621호(25.2%), 그리고 자급농가는 200호(8.1%)임( $\chi^2=105.017$ , prob=0.0001).

- 전문농가의 비중이 높은 곳은 제주(52.9%)와 경북(38.3%)이고, 일반농가의 비중이 높은 곳은 전남(40.1%), 충북(37.2%), 충남(36.3%)으로 나타남. 한편 부업농가의 비중이 높은 곳은 경기(33.5%)와 제주(32.0%), 강원(29.6%)이며, 자급농가의 비중이 높은 곳은 경기(13.5%)와 전북(10.7%)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적으로 볼 때, 전문농가는 제주와 경북이, 일반농가는 전남, 충북, 충남이, 부업농가는 경기와 제주, 강원이, 그리고 자급농가는 경기와 전북에서 그 비중이 높다고 할 수 있음. 즉 지역별로 주부업농가의 특징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음.

<표 2> 지역별 전업·겸업농가

(단위: 호, %)

구분	전체	전업농가	1종 겸업	2종 겸업
전체	2,469 (100.0)	1,169 (47.4)	629 (25.5)	671 (27.2)
경기	296 (100.0)	133 (44.9)	57 (19.3)	106 (35.8)
강원	253 (100.0)	114 (45.1)	60 (23.7)	79 (31.2)
충북	250 (100.0)	107 (42.8)	77 (30.8)	66 (26.4)
충남	289 (100.0)	130 (45.0)	84 (29.1)	75 (26.0)
전북	290 (100.0)	146 (50.3)	75 (25.9)	69 (23.8)
전남	332 (100.0)	161 (48.5)	95 (28.6)	76 (22.9)
경북	334 (100.0)	190 (56.9)	64 (19.2)	80 (24.0)
경남	272 (100.0)	131 (48.2)	70 (25.7)	71 (26.1)
제주	153 (100.0)	57 (37.3)	47 (30.7)	49 (32.0)

주:  $\chi^2=45.742$ ,  $df=16$ ,  $prob=0.0001$

### 3) 영농형태

- 우리나라의 농가는 주로 논벼(19.8%)와 채소(22.2%)를 재배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축산(10.3%)과 과수(10.4%)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역별로 영농형태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 $\chi^2=416.408$ , prob=0.0001).
- 논벼는 주로 충남(26.6%)과 전북(26.2%), 전남(30.4%)에서 재배 비중이 많은 반면, 채소는 강원(29.6%)과 경남(26.5%)에서 재배 비중이 상대적으로 많음. 그리고 축산은 전북(12.4%)과 전남(11.5%)이, 과수는 경북(18.9%)과 제주(36.0%)에서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3> 지역별 주부업농가

(단위: 호, %)

구분	전체	주업농가		부업농가	자급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전체	2,469 (100.0)	833 (33.7)	815 (33.0)	621 (25.2)	200 (8.1)
경기	296 (100.0)	73 (24.7)	84 (28.4)	99 (33.5)	40 (13.5)
강원	253 (100.0)	76 (30.0)	78 (30.8)	75 (29.6)	24 (9.5)
충북	250 (100.0)	82 (32.8)	93 (37.2)	57 (22.8)	18 (7.2)
충남	289 (100.0)	97 (33.6)	105 (36.3)	74 (25.6)	13 (4.5)
전북	290 (100.0)	101 (34.8)	97 (33.5)	61 (21.0)	31 (10.7)
전남	332 (100.0)	107 (32.2)	133 (40.1)	73 (22.0)	19 (5.7)
경북	334 (100.0)	128 (38.3)	105 (31.4)	73 (21.9)	28 (8.4)
경남	272 (100.0)	88 (32.4)	99 (36.4)	60 (22.1)	25 (9.2)
제주	153 (100.0)	81 (52.9)	21 (13.7)	49 (32.0)	2 (1.3)

주:  $\chi^2=105.017$ , df=24, prob=0.0001

<표 4> 지역별 영농형태

(단위: 호, %)

구분	전체	논벼	과수	채소	특작	화훼	전작	축산	기타	2종 겸업
전체	2,469 (100.0)	490 (19.9)	258 (10.5)	549 (22.2)	60 (2.4)	51 (2.1)	96 (3.9)	254 (10.3)	40 (1.6)	671 (27.2)
경기	296 (100.0)	56 (18.9)	13 (4.4)	55 (18.6)	5 (1.7)	21 (7.1)	7 (2.4)	32 (10.8)	1 (0.3)	106 (35.8)
강원	253 (100.0)	24 (9.5)	8 (3.2)	75 (29.6)	7 (2.8)	1 (0.4)	23 (9.1)	28 (11.1)	8 (3.2)	79 (31.2)
충북	250 (100.0)	40 (16.0)	40 (16.0)	48 (19.2)	7 (2.8)	3 (1.2)	19 (7.6)	22 (8.8)	5 (2.0)	66 (26.4)
충남	289 (100.0)	77 (26.6)	13 (4.5)	64 (22.2)	7 (2.4)	7 (2.4)	9 (3.1)	31 (10.7)	6 (2.1)	75 (26.0)
전북	290 (100.0)	76 (26.2)	17 (5.9)	58 (20.0)	13 (4.5)	2 (0.7)	11 (3.8)	36 (12.4)	8 (2.8)	69 (23.8)
전남	332 (100.0)	101 (30.4)	18 (5.4)	80 (24.1)	4 (1.2)	4 (1.2)	5 (1.5)	38 (11.5)	6 (1.8)	76 (22.9)
경북	334 (100.0)	62 (18.6)	63 (18.9)	67 (20.1)	11 (3.3)	3 (0.9)	6 (1.8)	36 (10.8)	6 (1.8)	80 (24.0)
경남	272 (100.0)	54 (19.9)	31 (11.4)	72 (26.5)	4 (1.5)	9 (3.3)	4 (1.5)	27 (9.9)	0 (0.0)	71 (26.1)
제주	153 (100.0)	0 (0.0)	55 (36.0)	30 (19.6)	2 (1.3)	1 (0.7)	12 (7.8)	4 (2.6)	0 (0.0)	49 (32.0)

주:  $\chi^2=416.408$ ,  $df=64$ .  $prob=0.0001$

#### 4) 경지규모

- 우리나라의 농가의 84.3%는 3ha 미만의 농지를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대부분의 농가는 소농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별로 농지경지의 규모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134.997$ ,  $prob=0.0001$ ).
- 1ha 미만의 경지면적이 높은 지역은 경기와 강원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충남과 경북의 농가는 주로 1~2ha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충북, 전북, 전남은 2~3ha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지역별 경지규모(ha 기준)

(단위: 호, %)

구분	전체	0.5 미만	0.5~ 1.0	1.0~ 1.5	1.5~ 2.0	2.0~ 3.0	3.0~ 5.0	5.0~ 7.0	7.0~ 10.0	10.0 이상
전체	2,469 (100.0)	622 (25.2)	561 (22.7)	364 (14.7)	276 (11.2)	258 (10.5)	221 (9.0)	79 (3.2)	42 (1.7)	46 (1.9)
경기	296 (100.0)	107 (36.2)	80 (27.0)	34 (11.5)	34 (11.5)	16 (5.4)	18 (6.1)	3 (1.0)	3 (1.0)	1 (0.3)
강원	253 (100.0)	81 (32.0)	43 (17.0)	34 (13.4)	28 (11.1)	20 (7.9)	24 (9.5)	9 (3.6)	6 (2.4)	8 (3.2)
충북	250 (100.0)	56 (22.4)	67 (26.8)	40 (16.0)	21 (8.4)	35 (14.0)	17 (6.8)	7 (2.8)	2 (0.8)	5 (2.0)
충남	289 (100.0)	52 (18.0)	76 (26.3)	41 (14.2)	36 (12.5)	29 (10.0)	30 (10.4)	9 (3.1)	8 (2.8)	8 (2.8)
전북	290 (100.0)	79 (27.2)	55 (19.0)	36 (12.4)	26 (9.0)	37 (12.8)	35 (12.1)	14 (4.8)	3 (1.0)	5 (1.7)
전남	332 (100.0)	71 (21.4)	73 (22.0)	51 (15.4)	30 (9.0)	49 (14.8)	25 (7.5)	19 (5.7)	8 (2.4)	6 (1.8)
경북	334 (100.0)	82 (24.6)	64 (19.2)	64 (19.2)	48 (14.4)	33 (9.9)	30 (9.0)	6 (1.8)	3 (0.9)	4 (1.2)
경남	272 (100.0)	67 (24.6)	73 (26.8)	40 (14.7)	34 (12.5)	21 (7.7)	23 (8.5)	7 (2.6)	4 (1.5)	3 (1.1)
제주	153 (100.0)	27 (17.7)	30 (19.6)	24 (15.7)	19 (12.4)	18 (11.8)	19 (12.4)	5 (3.3)	5 (3.3)	6 (3.9)

주:  $\chi^2=134.997$ ,  $df=64$ ,  $prob=0.0001$

## 5) 경영주의 연령

- 조사대상 농가의 대부분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즉 70대 이상이 44.7%로 가장 높고, 60대가 33.6%로 나타남. 반면 30대와 40대는 불과 0.4%와 4.9%에 불과함. 따라서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지역별로 경영주의 연령대가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chi^2=78.0685$ ,  $prob=0.0001$ ).
- 즉 제주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40대(11.8%)와 50대(29.4%)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고, 경기의 경우도 50대(19.3%)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외 지역은 전국적 분포와 동일하게 70대와 60대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 지역별 경영주 연령

(단위: 호, %)

구분	전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전체	2,469 (100.0)	9 (0.4)	122 (4.9)	404 (16.4)	830 (33.6)	1,104 (44.7)
경기	296 (100.0)	0 (0.0)	16 (5.4)	57 (19.3)	106 (35.8)	117 (39.5)
강원	253 (100.0)	1 (0.4)	6 (2.4)	28 (11.1)	85 (33.6)	133 (52.6)
충북	250 (100.0)	0 (0.0)	9 (3.6)	44 (17.6)	90 (36.0)	107 (42.8)
충남	289 (100.0)	0 (0.0)	20 (6.9)	40 (13.8)	105 (36.3)	124 (42.9)
전북	290 (100.0)	2 (0.7)	17 (5.9)	40 (13.8)	93 (32.1)	138 (47.6)
전남	332 (100.0)	1 (0.3)	10 (3.0)	58 (17.5)	105 (31.6)	158 (47.6)
경북	334 (100.0)	3 (0.9)	16 (4.8)	49 (14.7)	126 (37.7)	140 (41.9)
경남	272 (100.0)	1 (0.4)	10 (3.7)	43 (15.8)	87 (32.0)	131 (48.2)
제주	153 (100.0)	1 (0.7)	18 (11.8)	45 (29.4)	33 (21.6)	56 (36.6)

주:  $\chi^2=78.0685$ ,  $df=32$ ,  $prob=0.0001$

## 6) 경영주의 성별

- 농가의 경영주는 89.6%가 남자이고, 여자는 10.4%에 불과함.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은 주로 남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지역별로 동일한 것으로 분석됨( $\chi^2=10.6073$ ,  $prob=0.0225$ ).

<표 7> 지역별 경영주 성별

(단위: 호,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2,469 (100.0)	2,213 (89.6)	256 (10.4)
경기	296 (100.0)	267 (90.2)	29 (9.8)
강원	253 (100.0)	232 (91.7)	21 (8.3)
충북	250 (100.0)	234 (93.6)	16 (6.4)
충남	289 (100.0)	256 (88.6)	33 (11.4)
전북	290 (100.0)	263 (90.7)	27 (9.3)
전남	332 (100.0)	291 (87.7)	41 (12.4)
경북	334 (100.0)	290 (86.8)	44 (13.2)
경남	272 (100.0)	242 (89.0)	30 (11.0)
제주	153 (100.0)	138 (90.2)	15 (9.8)

주:  $\chi^2=10.6073$ ,  $df=8$ ,  $prob=0.225$

### 1) 농가수지

- 농가수지는 농가소득, 농가가계지출, 농가자산, 그리고 농가부채를 통해 살펴볼 수 있음.
  - 농가소득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가가계지출과 농가자산, 그리고 농가부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함.
- 우리나라 농가의 가계지출은 평균 3,030만원이고, 충남은 2,849만원(전국 6위)임. 한편 가계지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4,033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2,694만원임.
  - 농가가계지출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10.03$ ,  $prob=0.0001$ )
- 농가가계지출이 가장 높은 제주와 경기도는 다른 7개 지역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7개 지역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가자산의 전국 평균은 43,146만원이고, 충남은 39,421만원(전국 5위)임. 한편 농가자산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 83,618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26,941만원임.
  - 농가자산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29.71$ ,  $prob=0.0001$ )

- 농가자산이 가장 많은 경기와 제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강원은 전북과 전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충남과 경남은 전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한편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끝으로 농가부채의 전국 평균은 2,542만원이고, 충남은 2,167만원(전국 6위)임. 한편 농가부채가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로 6,185만원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1,992만원임.
  - 농가부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8.43$ ,  $prob=0.0001$ )
- 농가부채는 제주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경기인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그 외 7개 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8> 지역별 농가수지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가가계지출	농가자산	농가부채
전체	3,714	3,030	43,146	2,542
경기	4,102	3,694 <sup>a</sup>	83,618 <sup>a</sup>	4,565 <sup>b</sup>
강원	3,967	2,927 <sup>b</sup>	43,894 <sup>c</sup>	1,992 <sup>c</sup>
충북	3,659	2,788 <sup>b</sup>	32,814 <sup>cde</sup>	1,252 <sup>c</sup>
충남	3,472	2,849 <sup>b</sup>	39,421 <sup>cd</sup>	2,167 <sup>c</sup>
전북	3,613	2,846 <sup>b</sup>	30,894 <sup>de</sup>	2,490 <sup>c</sup>
전남	3,441	2,717 <sup>b</sup>	26,941 <sup>e</sup>	2,358 <sup>c</sup>
경북	3,822	2,917 <sup>b</sup>	36,761 <sup>cde</sup>	1,753 <sup>c</sup>
경남	3,460	3,064 <sup>b</sup>	41,636 <sup>cd</sup>	2,173 <sup>c</sup>
제주	4,381	4,033 <sup>a</sup>	54,358 <sup>b</sup>	6,185 <sup>a</sup>
F값(prob)	1.46(0.1684)	10.03(0.0001)	29.71(0.0001)	8.43(0.0001)
충남순위	7	6	5	6
최대	4,381	4,033	83,618	6,185
최소	3,441	2,717	26,941	1,252

## 2) 농가소득

- 농가소득은 농업소득과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어 있음. 9개 지역별로 농가소득의 차이를 분석해 보도록 함.
- 농가소득의 전국 평균은 3,714만원이고, 충남은 3,472만원(전국 7위)임. 한편 농가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381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3,441만원임.
  - 그러나 농가소득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46$ ,  $\text{prob}=0.1684$ ).
  - 그러므로 농가경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9개 지역별로 농가소득이 낮다 혹은 높다 라고 분석할 수 없음.
- 농업소득의 전국 평균은 1,232만원이고, 충남은 1,132만원(전국 5위)임. 한편 농업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북으로 1,547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로 754만원임.
  - 농업소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경북지역은 경기와 제주에 비해서 농업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북지역은 다른 6개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90$ ,  $\text{prob}=0.0564$ ).
  - 그러므로 경북지역의 농업소득이 경기와 제주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지역과는 통계적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농업외소득의 전국 평균은 1,478만원이고, 충남은 1,478만원(전국 6위)임. 한편 농업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2,435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1,142만원임.
  - 농업외소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제주와 경기는 다른 7개 지역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리고 충남을 비롯한 7개 지역 간의 농업외소득은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1052$ ,  $\text{prob}=0.0001$ ).
  - 따라서 농업외소득의 경우 제주와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소득수준이

높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이전소득의 전국 평균은 793만원이고, 충남은 802만원(전국 6위)임. 한편 이전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873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로 720만원임.
- 이전소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01$ ,  $prob=0.4299$ ).
- 따라서 이전소득은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표 9> 지역별 농가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전체	3,714	1,132	1,478	793	312
경기	4,102	754 <sup>b</sup>	2,294 <sup>a</sup>	720	334
강원	3,967	1,287 <sup>ab</sup>	1,546 <sup>b</sup>	831	304
충북	3,659	1,258 <sup>ab</sup>	1,340 <sup>b</sup>	815	246
충남	3,472	1,034 <sup>ab</sup>	1,316 <sup>b</sup>	802	321
전북	3,613	985 <sup>ab</sup>	1,562 <sup>b</sup>	802	264
전남	3,441	1,205 <sup>ab</sup>	1,142 <sup>b</sup>	805	288
경북	3,822	1,547 <sup>a</sup>	1,204 <sup>b</sup>	750	320
경남	3,460	1,019 <sup>ab</sup>	1,218 <sup>b</sup>	873	350
제주	4,381	771 <sup>b</sup>	2,435 <sup>a</sup>	770	404
F값(prob)	1.46(0.1684)	1.90(0.0564)	10.52(0.0001)	1.01(0.4299)	0.97(0.4571)
충남순위	7	5	6	6	4
최대	4,381	1,547	2,435	873	404
최소	3,441	754	1,142	720	246

- 비경상소득의 전국 평균은 312만원이고, 충남은 321만원(전국 4위)임. 한편 비경상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04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246만원임.
- 비경상소득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0.97$ ,  $prob=0.4571$ ).

- 따라서 비경상소득은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농가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낮다고 할 수 없고, 전국 모든 지역의 농가소득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즉 충남의 농가소득, 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낮은 수준은 아님. 다만 농업외소득은 제주와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3) 농업소득

-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에서 농업경영비를 제외한 것임. 그리고 농업총수입은 농작물수입과 축산물수입, 그리고 농업잡수입의 합계로 구성됨. 한편 농업총수입을 농업경영비로 나눈 것을 농업소득률이라고 함.
- 농업소득은 농가소득에서 이미 기술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농업총수입과 농업경영비, 그리고 농업소득률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함.
- 우선 농업총수입의 전국 평균은 3,362만원이고, 충남은 2,793만원(전국 9위)임. 한편 농업총수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5,529만원임.
  - 농업총수입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07$ ,  $prob=0.3825$ ).
- 농작물수입의 전국 평균은 2,225만원이고, 충남은 2,053만원(전국 7위)임. 한편 농작물수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3,802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1,577만원임.
  - 농작물수입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와 가

장 낮은 지역인 경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 그러나 제주와 다른 7개 지역, 다른 7개 지역과 경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5.00$ ,  $\text{prob}=0.0001$ ).

- 따라서 농작물수입은 제주가 경기도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고, 그 외 지역과는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축산물수입의 전국 평균은 1,099만원이고, 충남은 719만원(전국 8위)임. 한편 축산물수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2,164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555만원임.

- 축산물수입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11$ ,  $\text{prob}=0.3515$ ).
- 따라서 축산물수입은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농업잡수입의 전국 평균은 38만원이고, 충남은 20만원(전국 7위)임. 한편 농업잡수입이 가장 높은 지역은 강원으로 145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북으로 17만원임.

- 농업잡수입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11$ ,  $\text{prob}=0.3515$ ).
- 따라서 농업잡수입은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농업경영비의 전국 평균은 2,230만원이고, 충남은 1,759만원(전국 9위)임. 한편 농업경영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758만원임.

- 농업경영비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농업경영비가 가장 높은 제주와 다른 8개 지역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F=2.79$ ,  $\text{prob}=0.0045$ ).
- 따라서 농업경영비는 다른 8개 지역에 비해서 제주가 높은 수준이고, 충남을 비롯한 8개 지역의 농업경영비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



- 농업소득률의 전국 평균은 14.1%이고, 충남은 13.3%(전국 6위)임. 한편 농업소득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7.5%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남으로 - 30.99%임.
  - 농업소득률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0.21$ ,  $prob=0.9894$ ).
  - 따라서 농업소득률은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농업총수입, 농업경영비, 그리고 농업소득률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거나 낮다고 할 수 없음.
  - 다만 농업총수입 중 충남의 농작물수입은 제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농업경영비는 오히려 제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농작물수입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표 1>, <부표 2>, <부표 3>를 참조하도록 하고, 다음에서는 간략한 내용만 기술하도록 함.
  - 충남의 미곡부문 수입은 전북, 전남보다 낮고, 강원, 제주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충북, 경북, 경남과는 유사함( $F=9.80$ ,  $prob=0.0001$ ).
  - 충남의 맥류부문 수입은 제주, 전남, 전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경기, 강원, 충북, 경북, 경남과는 유사함( $F=10.44$ ,  $prob=0.0001$ ).
  - 충남의 두류부문 수입은 제주보다 낮고, 경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6개 지역과는 유사함( $F=6.61$ ,  $prob=0.0001$ ).
  - 충남의 잡곡부문 수입은 강원, 충북, 전남, 제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전북, 경북, 경남과는 유사한 수준임( $F=5.87$ ,  $prob=0.0001$ ).
  - 충남의 서류부문 수입은 경북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다른 7개 지역과는 유사한 수준임( $F=1.67$ ,  $prob=0.1012$ ).
  - 충남의 채소부문 수입은 다른 8개 지역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다만 경남은 전북과 경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F=2.50$ ,  $prob=0.0105$ ).
  - 충남의 과일부문 수입은 제주, 경북, 충북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5개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 $F=22.70$ ,  $prob=0.0001$ ).

- 충남의 화훼부문과 특작 및 기타부문 수입은 다른 지역과 부문 수입은 다른 지역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0.99$ ,  $prob=0.4441$ ;  $F=0.86$ ,  $prob=0.5541$ ).
- 충남의 농작물분산물부문 수입은 경남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7개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 $F=3.74$ ,  $prob=0.0002$ ).
- 축산물수입 중에서 충남의 대동물, 소동물, 축산부산물부문 수입은 다른 8개 지역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0.62$ ,  $prob=0.7610$ ;  $F=0.52$ ,  $prob=0.8436$ ;  $F=0.38$ ,  $prob=0.9332$ ).
- 다만 충남의 축산물 수입은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외 7개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음( $F=2.43$ ,  $prob=0.0129$ ).
- 끝으로 농업잡수입 중 충남의 농업피해보상금과 기타부문 수입은 다른 8개 지역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1.36$ ,  $prob=0.2094$ ;  $F=1.88$ ,  $prob=0.0590$ ).

<표 10> 지역별 농업소득

(단위: 만원, %)

구분	농업소득	농업총수입	농작물수입	축산물수입	농업잡수입	농업경영비	농업소득률
전체	1,132	3,362	2,225	1,099	38	2,230	14.1
경기	754 <sup>b</sup>	3,765	1,577 <sup>c</sup>	2,164	25	3,011 <sup>b</sup>	9.09
강원	1,287 <sup>ab</sup>	3,259	1,887 <sup>bc</sup>	1,227	145	1,973 <sup>b</sup>	30.99
충북	1,258 <sup>ab</sup>	3,162	2,343 <sup>bc</sup>	802	17	1,904 <sup>b</sup>	19.89
충남	1,034 <sup>ab</sup>	2,793	2,053 <sup>bc</sup>	719	20	1,759 <sup>b</sup>	13.3
전북	985 <sup>ab</sup>	3,254	2,196 <sup>bc</sup>	1,009	48	2,269 <sup>b</sup>	26.45
전남	1,205 <sup>ab</sup>	3,449	2,331 <sup>bc</sup>	1,076	41	2,244 <sup>b</sup>	12.7
경북	1,547 <sup>a</sup>	3,468	2,475 <sup>bc</sup>	960	34	1,921 <sup>b</sup>	27.84
경남	1,019 <sup>ab</sup>	2,926	2,349 <sup>bc</sup>	555	22	1,907 <sup>b</sup>	-30.99
제주	771 <sup>b</sup>	5,529	3,802 <sup>a</sup>	1,709	17	4,758 <sup>a</sup>	47.96
F값(prob)	1.90(0.0564)	1.07(0.3825)	5.00(0.0001)	1.11(0.3515)	1.32(0.2303)	2.79(0.0045)	0.21(0.6894)
충남순위	5	9	7	8	7	9	6
최대	1,547	5,529	3,802	2,164	145	4,758	47.96
최소	754	2,793	1,577	555	17	1,759	-30.99

## 4) 농외소득

- 농외소득은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으로 구성이 됨. 그리고 겸업소득은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겸업(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등으로 구분되고, 사업외소득은 근로수입(농외임금, 농업노임), 자본수입(농지임대, 기타자본)으로 구분됨.
- 농가소득에서 농외소득에 대한 기술을 하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겸업소득과 사업외소득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함.
- 겸업소득의 전국 평균은 370만원이고, 충남은 327만원(전국 7위)임. 한편 겸업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로 577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강원으로 246만원임.
  - 겸업소득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73$ ,  $prob=0.0869$ ).
  - 따라서 겸업소득은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사업외소득의 전국 평균은 1,107만원이고, 충남은 988만원(전국 6위)임. 한편 사업외소득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1,996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753만원임.
  - 사업외소득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제주와 경기는 다른 7개 지역에 비해서 사업외소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강원은 전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5개 지역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10.81$ ,  $prob=0.0001$ ).
  - 따라서 사업외소득은 제주와 경기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고, 강원은 전남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음. 그 외 지역의 사업외소득은 유사한 수준임.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겸업소득은 다른 8개 지역과 통계적 차이가 없으나, 사업외소득은 제주와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사업외소득은 다른 6개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겸업소득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표 4>와 <부표 5>를 참조하도록 하고, 다음에서는 간략한 내용만 기술하도록 함.

- 충남의 임업 및 어업부문 겸업소득은 전남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외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2.62$ ,  $prob=0.074$ ).
- 충남의 제조업과 건설부문 겸업소득은 9개 지역 간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0.88$ ,  $prob=0.5335$ ;  $F=1.32$ ,  $prob=0.2307$ ).
- 충남의 기타겸업소득(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은 강원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그 외 7개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3.79$ ,  $prob=0.0002$ ).
- 충남의 농업서비스 겸업소득은 다른 8개 지역과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0.92$ ,  $prob=0.5019$ ).
- 충남의 음식숙박과 도소매 겸업소득은 다른 지역과 통계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2.68$ ,  $prob=0.0062$ ;  $F=2.02$ ,  $prob=0.0405$ ).
- 충남의 기타 겸업소득은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다른 7개 지역과는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F=3.76$ ,  $prob=0.0002$ ).

● 한편 사업외소득의 세부적인 내용은 <부표 6>을 참조하도록 하고, 다음에서는 간략한 내용만 기술하도록 함.

- 충남의 근로수입은 제주와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F=5.92$ ,  $prob=0.0001$ ).
- 충남의 농외임금은 제주와 경기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지역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F=5.56$ ,  $prob=0.0001$ ).
- 충남의 농업노임은 제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7개 지역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F=3.48$ ,  $prob=0.0005$ ).
- 충남의 자본수입은 제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충북과 전북에 비

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지역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F=14.66$ ,  $prob=0.0001$ ).

- 충남의 농지임대 수입은 전북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7개 지역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F=4.85$ ,  $prob=0.0001$ ).
- 충남의 기타자본 수입은 경기도에 비해서 낮고, 충북과 전남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외 다른 5개 지역과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F=16.06$ ,  $prob=0.001$ ).

## 5) 이전소득

- 이전소득은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으로 구분이 됨. 농가소득에서 이전소득 총괄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공적보조금과 사적보조금을 중심으로 기술하도록 함.
- 공적보조금의 전국 평균은 725만원이고, 충남은 752만원(전국 4위)임. 한편 공적보조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남으로 873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도로 720만원임.
  - 공적보조금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F=1.67$ ,  $prob=0.1012$ ).
  - 따라서 공적보조금은 9개 지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음.
- 사적보조금의 전국 평균은 68만원이고, 충남은 50만원(전국 7위)임. 그리고 사적보조금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으로 180만원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44만원임.
  - 사적보조금에 대한 분산분석의 결과에 의하면, 충북은 다른 8개 지역에 비해서 사적보조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F=4.98$ ,  $prob=0.0001$ ).

- 따라서 충북은 사적보조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많은 반면, 8개 지역간에는 사적보조금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충남의 공적보조금은 다른 지역과 유사한 반면, 사적보조금은 충북에 비해서 낮다고 할 수 있음.

<표 11> 지역별 농외소득과 이전소득

(단위: 만원)

구분	농외소득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사적보조금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전체	1,478	370	1,107	793	725	68
경기	2,294 <sup>a</sup>	577	1,716 <sup>a</sup>	720	636	84 <sup>b</sup>
강원	1,546 <sup>b</sup>	246	1,300 <sup>b</sup>	831	757	74 <sup>b</sup>
충북	1,340 <sup>b</sup>	351	988 <sup>bcd</sup>	815	635	180 <sup>a</sup>
충남	1,316 <sup>b</sup>	327	988 <sup>bcd</sup>	802	752	50 <sup>b</sup>
전북	1,562 <sup>b</sup>	398	1,165 <sup>bc</sup>	802	747	55 <sup>b</sup>
전남	1,142 <sup>b</sup>	389	753 <sup>d</sup>	805	761	44 <sup>b</sup>
경북	1,204 <sup>b</sup>	288	916 <sup>bcd</sup>	750	704	47 <sup>b</sup>
경남	1,218 <sup>b</sup>	332	885 <sup>cd</sup>	873	811	63 <sup>b</sup>
제주	2,435 <sup>a</sup>	439	1,996 <sup>a</sup>	770	703	67 <sup>b</sup>
F값(prob)	10.52(0.0001)	1.73(0.0869)	10.81(0.0001)	1.01(0.4299)	1.67(0.1012)	4.98(0.0001)
충남순위	6	7	6	6	4	7
최대	2,435	577	1,996	873	811	180
최소	1,142	246	753	720	635	44

## 6) 농가소득 결정요인분석

-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농가소득을 종속변수로 하고, 독립변수로는 농작물수입, 축산물수입, 농업잡수입, 겸업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등과 같은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변수로 설정하였음.
- 그리고 농가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자산과 부채, 농가유형과 경자규모, 경영주의 연령 등을 통제변수로 반영하였음.

- 아울러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서 정책적 의미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제주 등을 더미변수로 사용하였음.

●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대동물( $e=0.3666$ )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농외임금( $e=0.3346$ ), 축산물( $e=0.1949$ ), 공적보조금( $e=0.1660$ ), 비경상소득( $e=0.1353$ ), 채소( $e=0.1298$ ), 특작 및 기타( $e=0.1284$ ), 과실( $e=0.1260$ ), 미곡( $e=0.1260$ ), 농업피해보상금( $e=0.1031$ )인 것으로 나타남. 한편 농가부채는 농가소득에  $-0.0580$ 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첫째, 농작물 수입부문에서 보면, 채소( $e=0.1298$ ,  $prob=0.0001$ )가 농가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특작 및 기타( $e=0.1284$ ,  $prob=0.0001$ ), 과실( $e=0.1260$ ,  $prob=0.0001$ ), 미곡( $e=0.1042$ ,  $prob=0.0001$ ), 서류( $e=0.0633$ ,  $prob=0.0001$ ), 두류( $e=0.0164$ ,  $prob=0.0001$ ), 화훼( $e=0.0148$ ,  $prob=0.0361$ ) 등의 순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반면, 농작물 수입 중에서 맥류( $e=-0.0051$ ,  $prob=0.5001$ )와 잡곡( $e=0.0113$ ,  $prob=0.1185$ ), 그리고 농작물 부산물( $e=0.0004$ ,  $prob=0.9588$ ) 수입은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축산물 수입부문에서 보면, 대동물( $e=0.3666$ ,  $prob=0.0001$ )이 농가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축산물( $e=0.1949$ ,  $prob=0.0001$ )과 소동물( $e=0.0404$ ,  $prob=0.0001$ )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축산부산물( $e=0.0070$ ,  $prob=0.3127$ )은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셋째, 농업잡수입부문에서 보면, 농업피해보상금( $e=0.1031$ ,  $prob=0.0001$ )은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기타( $e=0.0115$ ,  $prob=0.1030$ )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넷째, 겸업소득 부문에서 보면, 제조업( $e=0.1029$ ,  $prob=0.0001$ )이 농가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 $e=0.0843$ ,  $prob=0.0001$ ), 음식숙박( $e=0.0825$ ,  $prob=0.0001$ ), 기타( $e=0.0822$ ,  $prob=0.0001$ ), 임업 및 어업( $e=0.0656$ ,  $prob=0.0001$ ), 농업서비스( $e=0.0642$ ,  $prob=0.0001$ ), 건설업( $e=0.0442$ ,  $prob=0.0001$ )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다섯째, 사업외소득 부문에서 보면, 농외임금( $e=0.3346$ ,  $prob=0.0001$ )이 농가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타자본수입( $e=0.0572$ ,  $prob=0.0001$ ), 농지임대수입( $e=0.0388$ ,  $prob=0.0001$ ), 그리고 농업노임( $e=0.0272$ ,  $prob=0.0002$ )인 것으로 나타남.
- 여섯째, 이전소득 부문에서 보면, 공적보조금( $e=0.1660$ ,  $prob=0.0001$ )이 농가소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사적보조금( $e=0.0517$ ,  $prob=0.0001$ )도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비경상소득( $e=0.1353$ ,  $prob=0.0001$ )도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일곱째, 농가의 특성변수 8개 중에서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논벼외 영농더미( $e=0.0587$ ,  $prob=0.0004$ )와 농가자산( $e=0.0457$ ,  $prob=0.0002$ ) 그리고 농가부채( $e=-0.0580$ ,  $prob=0.0001$ )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농가부채는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겸업농가더미, 주업농가더미, 2ha이상 경작더미, 60세 이하 더미, 경영주 남성 더미 등의 변수는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여덟째, 지역의 더미 변수 중에서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경북( $e=0.0225$ ,  $prob=0.0067$ )과 제주( $e=-0.0371$ ,  $prob=0.0001$ )인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제주는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경기, 강원, 충남더미는 농가소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2>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5개도 더미)

구분		표준화된 추정치	표준오차	t값	유의수준
농작물 수입	미곡	0.1042	0.0427	9.75	0.0001
	맥류	-0.0051	0.4733	-0.67	0.5001
	두류	0.0164	0.2259	2.11	0.0349
	잡곡	0.0113	0.2603	1.56	0.1185
	서류	0.0633	0.0762	8.76	0.0001
	채소	0.1298	0.0229	14.87	0.0001
	과실	0.1260	0.0260	15.32	0.0001
	화훼	0.0148	0.0550	2.10	0.0360
	특작 및 기타	0.1284	0.0302	17.29	0.0001
	농작물 부산물	0.0004	0.4968	0.05	0.9588
축산물 수입	대동물	0.3666	0.0075	47.55	0.0001
	소동물	0.0404	0.0254	5.73	0.0001
	축산물	0.1949	0.0071	26.89	0.0001
	축산부산물	0.0070	0.2844	1.01	0.3127
농업 잡수입	농업피해보상금	0.1031	0.0792	14.51	0.0001
	기타	0.0115	1.8388	1.63	0.1030
겸업소득	임업 및 어업	0.0656	0.0470	9.26	0.0001
	제조업	0.1029	0.0364	14.14	0.0001
	건설업	0.0442	0.0573	6.29	0.0001
	농업서비스	0.0642	0.0793	8.91	0.0001
	음식숙박	0.0825	0.0289	11.52	0.0001
	도소매	0.0843	0.0140	11.38	0.0001
	기타	0.0822	0.0445	10.20	0.0001
사업외 소득	농외임금	0.3346	0.0274	32.88	0.0001
	농업노임	0.0272	0.2076	3.72	0.0002
	농지임대수입	0.0388	0.1571	5.45	0.0001
	기타자본수입	0.0572	0.0891	6.37	0.0001
이전소득	공적보조금	0.1660	0.0527	16.11	0.0001
	사적보조금	0.0517	0.1368	7.20	0.0001
비경상소득		0.1353	0.0616	17.12	0.0001
농가자산		0.0457	0.0009	3.72	0.0002
농가부채		-0.0580	0.0066	-6.36	0.0001
농가특성	겸업농가 더미	0.0182	957907.0000	1.41	0.1579
	주업농가 더미	-0.0027	1061294.0000	-0.17	0.8649
	논벼 외 영농 더미	0.0587	994234.0000	3.58	0.0004
	2ha 이상 경작 더미	0.0037	1083824.0000	0.37	0.7130
	60세 이하 더미	-0.0235	974657.0000	-1.43	0.1524
	경영주 남성 더미	-0.0066	1168032.0000	-0.31	0.7555
지역변수	경기 더미	-0.0150	1199172.0000	-1.77	0.0765
	강원 더미	-0.0039	1473964.0000	-0.51	0.6124
	충남 더미	0.0084	1134043.0000	1.06	0.2905
	경북 더미	0.0225	1025934.0000	2.71	0.0067
	제주 더미	-0.0371	2141874.0000	-4.84	0.0001
모형적합성	F값(prob)	436.34(0.0001)			
	$R^2$	0.8931			

## 1) 조사농가의 일반특성

- 지역별로 농가의 특성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즉 농가유형, 주부업농가, 영농형태, 경지규모, 경영주의 연령은 지역별 차이가 있는 반면, 경영주의 성별은 지역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농가유형은 전국적으로 볼 때,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비중이 유사하지만, 경북과 제주는 전업농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제주는 겸업농가의 비중이 높음.
- 주부업농가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의 비중이 유사하지만, 제주와 경북은 전문농가가, 전남, 충북, 충남은 일반농가가, 그리고 경기, 전북은 자급농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영농형태를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논벼와 채소를 주로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역적으로 보면, 충남과 전북, 전남은 논벼, 채소는 강원과 경남, 축산은 전북과 전남, 과수는 경북과 제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지규모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대부분 3ha 미만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지역적으로 보면, 경기, 강원은 1ha 미만이며, 충남, 경북은 1~2ha가, 그리고 충북, 전북, 전남은 2~3ha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경영주의 연령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60대 이상의 고령화율이 매우 높게 진행된 상태임. 다만 제주는 40대와 50대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경기도는 50대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끝으로 경영주의 성별은 대부분 남성으로 되어 있고, 이는 전국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조사농가의 일반특성 종합

구분	전국	지역별 차이
농가유형	전업농가와 겸업농가의 비중 유사	경북, 전북: 전업농가 비중이 높음 제주: 겸업농가 비중이 높음
주부업농가	전문농가, 일반농가, 부업농가의 비중이 유사	제주, 경북: 전문농가 비중이 높음 전남, 충북, 충남: 일반농가의 비중이 높음 경기, 전북: 자급농가의 비중이 높음
영농형태	논벼와 채소 재배	충남, 전북, 전남: 논벼 채소: 강원, 경남 축산: 전북, 전남 과수: 경북, 제주
경지규모	3ha 미만의 소농	경기, 강원: 1ha 미만 충남, 경북: 1~2ha 충북, 전북, 전남: 2~3ha
경영주의 연령	60대 이상의 고령화	제주: 40대와 50대의 비중이 높음 경기: 50대의 비중이 높음
경영주의 성별	남성 위주	지역별 차이 없음

## 2) 농가소득과 결정요인분석

- 충남의 농가소득은 다른 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 따라서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충남의 농가소득이 전국의 몇 등이다 혹은 어느 지역보다 낮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평가임.
  - 이는 농가소득을 구성하는 농업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에서도 동일함. 그

그러나 충남의 농외소득은 경기와 제주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즉 충남의 농외소득은 경기와 제주보다 낮다고 할 수 있음.

- 농외소득의 경우, 겸업소득에서는 다른 지역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반면, 사업외소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아울러 사업외소득의 근로수입(농외임금과 농업노임)과 자본수입(농지임대와 기타자본)에 있어도 경기와 제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므로 충남의 농가소득은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고, 다만 사업외소득은 경기와 제주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세부적인 항목까지 고려할 때, 농작물 수입은 제주에 비해서 낮고, 경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리고 농업경영비는 제주보다 낮고, 사적보조금은 충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농가소득의 결정요인분석 결과에 의하면, 대동물, 농외임금, 축산물, 공적보조금, 비경상소득, 채소, 특작 및 채소, 과실, 미곡, 농업피해보상금이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동물 사육을 확대하고, 농외임금을 확대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임. 그 외에 농작물 측면에서는 채소, 특작 및 기타, 과실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 그리고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겸업소득 부문에 초점을 둘 필요성이 있음. 이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6차산업화의 내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끝으로 분석결과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공적보조금과 농업피해보상금이 농가소득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임. 향후 공적보조금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고, 농작물피해보상제도가 확대되어야 할 것임.

### 3) 정책방안의 모색

-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농가소득의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고, 농가소득의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음.
- 분석결과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지역간 차이가 없었지만, 세부내용에서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도 변수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항목과 농가소득에 영향력이 큰 항목이 일치하는 것을 주목해 정책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농작물수입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농작물 수입을 증대시켜야 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특히 채소, 특작 및 기타, 과실 등을 활성화해 해야 할 것임.
  - 한편 논벼의 영농여부는 농가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논벼에 대한 정책에서 채소, 특작, 과실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곡은 여전히 중요한 농가소득원이기 때문에 생산량 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는 품질관리로 방향전환이 요구됨.
- 둘째, 농외소득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고, 농가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분야임. 따라서 농가소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촌지역에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농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재화와 서비스를 해당 지역주민이 스스로 공급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공공부문에서 입찰을 통해 도시에 있는 기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을 탈피하고, 아일랜드 RSS 프로그램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임.

- 셋째, 농가소득의 영향력은 높은 변수, 즉 축산물의 대동물과 축산물의 수입, 그리고 농외소득의 제조업 수입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동물에 대한 사육 증대와 축산물 수입이 절대적으로 요구됨. 이를 정책은 대농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할 것임.
  - 한편 농외소득 중 제조업 수입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역의 특화자원과 연계된 농산물가공산업을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는 현재 농가 중심에서 탈피해 마을 혹은 해당 시군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임.
  
- 넷째, 농가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적보조금과 농업피해보상금을 크게 주목할 필요성이 있음. 선진외국에서도 공적보조금이 농가소득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임.
  - 따라서 공공부문이 농가에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각종 정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제안을 해야 할 것임.
  - 그리고 농가가 자연재해에 의한 농가피해보상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농업피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할 것임.
  
- 다섯째,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지만, 농외소득 중 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에 대한 정책이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음.
  - 이들 분야는 농업과 연계된 활동이라는 측면이 있고,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음.
  - 따라서 기존 가공중심의 6차산업화정책에서 탈피하여 직판직거래를 중심으로 한 농업서비스(농촌관광)과 음식숙박(농가맛집) 등이 정책적으로 강조될 필요성이 있음.
  
- 한편 본 연구는 2015년의 자료에 한정하여 농가경제구조를 분석하였기 때문에 시계열적인 변화를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의 자료를 시계열을 고려한 패널분석에 의한 접근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표 14> 농가소득과 결정요인 분석결과의 종합

(단위: 만원)

구분		충남	전국	농가소득분석	결정요인분석		
농가소득		3,472	3,714	차이 없음	×		
	농업소득		1,034	1,132	차이 없음	×	
	농작물수입		2,053	2,225	제주보다 낮고, 경기보다 높음	큼(채소, 특작 및 기타, 과실)	
	축산물수입		719	1,099	차이 없음	큼(대동물, 축산물)	
	농업잡수입		20	38	차이 없음	큼(농업피해보상금)	
	농업경영비		1,759	2,230	제주보다 낮음	×	
	농외소득		1,316	1,478	경기, 제주보다 낮음	×	
	기타 겸업	겸업소득		327	370	차이 없음	×
		임업 및 어업		54	89	차이 없음	보통
		제조업		17	76	차이 없음	큼
		건설업		126	47	차이 없음	낮음
		농업서비스		60	51	차이 없음	보통
		음식숙박		89	129	차이 없음	보통
		도소매		206	286	차이 없음	보통
기타		44	135	경기 보다 낮음	보통		
사업외소득		988	1,107	제주, 경기보다 낮음	×		
근로 수입	농외임금	765	892	제주, 경기보다 낮음	큼		
		농업노임	49	43	제주보다 낮음	낮음	
	자본 수입	농지임대	35	42	전북보다 낮음	낮음	
		기타자본	164	149	경기보다 낮고, 충북 전남보다 높음	보통	
이전소득		802	793	차이 없음	×		
공적보조금		752	725	차이 없음	큼		
사적보조금		50	68	충북보다 낮음	보통		
비경상소득		321	312	차이 없음	큼		

## ◆ 참 고 자 료 ◆

통계청(2016), 201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 ◆ 부 표 ◆

<부표 1> 지역별 세부 농작물수입

(단위: 만원, %)

구분	미곡	맥류	두류	잡곡	서류
전체	620	10	51	26	68
경기	517 <sup>bc</sup>	0 <sup>c</sup>	31 <sup>c</sup>	20 <sup>bcd</sup>	43 <sup>ab</sup>
강원	403 <sup>c</sup>	3 <sup>c</sup>	70 <sup>b</sup>	86 <sup>a</sup>	143 <sup>a</sup>
충북	526 <sup>bc</sup>	0 <sup>c</sup>	62 <sup>bc</sup>	34 <sup>bc</sup>	136 <sup>ab</sup>
충남	662 <sup>b</sup>	1 <sup>c</sup>	54 <sup>bc</sup>	4 <sup>d</sup>	69 <sup>ab</sup>
전북	929 <sup>a</sup>	21 <sup>b</sup>	35 <sup>bc</sup>	21 <sup>bcd</sup>	103 <sup>ab</sup>
전남	950 <sup>a</sup>	31 <sup>b</sup>	53 <sup>bc</sup>	37 <sup>bc</sup>	50 <sup>ab</sup>
경북	570 <sup>bc</sup>	3 <sup>c</sup>	46 <sup>bc</sup>	21 <sup>bcd</sup>	28 <sup>b</sup>
경남	524 <sup>bc</sup>	5 <sup>c</sup>	37 <sup>bc</sup>	7 <sup>cd</sup>	45 <sup>ab</sup>
제주	5 <sup>d</sup>	71 <sup>a</sup>	174 <sup>a</sup>	40 <sup>b</sup>	102 <sup>ab</sup>
F값(prob)	9.80(0.0001)	10.44(0.0001)	6.61(0.0001)	5.87(0.0001)	1.67(0.1012)
충남순위	3	7	4	9	5
최대	950	71	174	86	143
최소	5	0	31	4	28

<부표 1> 지역별 세부 농작물수입(계속)

(단위: 만원, %)

구분	채소	과실	화훼	특작 및 기타	농작물부산 물
전체	768	445	41	181	16
경기	526 <sup>c</sup>	163 <sup>e</sup>	105	158	14 <sup>b</sup>
강원	777 <sup>abc</sup>	116 <sup>e</sup>	4	271	14 <sup>b</sup>
충북	713 <sup>abc</sup>	574 <sup>c</sup>	10	279	10 <sup>b</sup>
충남	811 <sup>abc</sup>	197 <sup>de</sup>	50	193	13 <sup>b</sup>
전북	537 <sup>bc</sup>	248 <sup>de</sup>	3	284	15 <sup>b</sup>
전남	920 <sup>abc</sup>	137 <sup>e</sup>	38	109	7 <sup>b</sup>
경북	705 <sup>abc</sup>	875 <sup>b</sup>	7	201	18 <sup>b</sup>
경남	1,068 <sup>a</sup>	505 <sup>cd</sup>	48	75	36 <sup>a</sup>
제주	950 <sup>ab</sup>	2,211 <sup>a</sup>	157	91	2 <sup>b</sup>
F값(prob)	2.50(0.0105)	22.70(0.0001)	0.99(0.4441)	0.86(0.5541)	3.74(0.0002)
충남순위	4	6	3	5	6
최대	1,068	2,211	157	284	36
최소	526	116	3	75	2

<부표 2> 지역별 세부 축산물수입

(단위: 만원, %)

구분	대동물	소동물	축산물	축산부산물
전체	662	38	396	3
경기	552	30	1,581 <sup>a</sup>	0
강원	830	3	393 <sup>b</sup>	0
충북	394	3	403 <sup>b</sup>	1
충남	490	62	153 <sup>b</sup>	14
전북	623	219	166 <sup>b</sup>	1
전남	963	9	104 <sup>b</sup>	1
경북	613	3	342 <sup>b</sup>	1
경남	523	18	10 <sup>b</sup>	3
제주	1,638	0	68 <sup>b</sup>	3
F값(prob)	0.62(0.7610)	0.52(0.8436)	2.43(0.0129)	0.38(0.9332)
충남순위	8	2	6	1
최대	1,638	219	1,581	14
최소	394	0	10	0

<부표 3> 지역별 세부 농업잡수입

(단위: 만원, %)

구분	농업피해보상금	기타
전체	36	2
경기	24	1
강원	144	1
충북	16	1
충남	18	2
전북	48	0
전남	41	1
경북	30	4
경남	18	4
제주	15	3
F값(prob)	1.36(0.2094)	1.88(0.0590)
충남순위	6	4
최대	144	4
최소	15	0

<부표 4> 지역별 세부 겸업소득

(단위: 만원, %)

구분	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기타겸업
전체	89	76	47	601
경기	7 <sup>b</sup>	26	13	1,397 <sup>a</sup>
강원	128 <sup>ab</sup>	125	12	371 <sup>b</sup>
충북	37 <sup>b</sup>	220	61	375 <sup>b</sup>
충남	54 <sup>b</sup>	17	126	399 <sup>b</sup>
전북	16 <sup>b</sup>	57	15	605 <sup>b</sup>
전남	244 <sup>a</sup>	78	25	344 <sup>b</sup>
경북	76 <sup>b</sup>	124	16	313 <sup>b</sup>
경남	143 <sup>ab</sup>	40	108	880 <sup>ab</sup>
제주	54 <sup>b</sup>	3	38	721 <sup>b</sup>
F값(prob)	2.62(0.0074)	0.88(0.5335)	1.32(0.2307)	3.79(0.0002)
충남순위	6	8	1	5
최대	244	220	126	1,397
최소	7	3	12	313

<부표 5> 지역별 세부 기타겸업소득

(단위: 만원, %)

구분	농업서비스	음식숙박	도소매	기타
전체	51	129	286	135
경기	97	352 <sup>a</sup>	600 <sup>ab</sup>	348 <sup>a</sup>
강원	13	229 <sup>ab</sup>	85 <sup>ab</sup>	44 <sup>bc</sup>
충북	38	230 <sup>ab</sup>	97 <sup>ab</sup>	10 <sup>c</sup>
충남	60	89 <sup>ab</sup>	206 <sup>ab</sup>	44 <sup>bc</sup>
전북	20	2 <sup>b</sup>	333 <sup>ab</sup>	248 <sup>ab</sup>
전남	43	101 <sup>ab</sup>	63 <sup>b</sup>	137 <sup>bc</sup>
경북	74	18 <sup>b</sup>	158 <sup>ab</sup>	62 <sup>bc</sup>
경남	21	28 <sup>b</sup>	710 <sup>a</sup>	121 <sup>bc</sup>
제주	46	363 <sup>a</sup>	102 <sup>ab</sup>	210 <sup>abc</sup>
F값(prob)	0.92(0.5019)	2.68(0.0062)	2.02(0.0405)	3.76(0.0002)
충남순위	3	6	4	8
최대	97	363	710	348
최소	13	2	63	10

<부표 6> 지역별 세부 사업외소득

(단위: 만원, %)

구분	근로수입	농외임금		자본수입	농지임대	
		농외임금	농업노임		농지임대	기타자본
전체	935	892	43	190	42	149
경기	1,286 <sup>b</sup>	1,254 <sup>b</sup>	32 <sup>b</sup>	476 <sup>a</sup>	56 <sup>b</sup>	420 <sup>a</sup>
강원	1,103 <sup>bc</sup>	1,069 <sup>bc</sup>	34 <sup>b</sup>	226 <sup>b</sup>	45 <sup>b</sup>	181 <sup>b</sup>
충북	926 <sup>bcd</sup>	880 <sup>cd</sup>	46 <sup>b</sup>	66 <sup>c</sup>	23 <sup>b</sup>	43 <sup>d</sup>
충남	815 <sup>cd</sup>	765 <sup>cd</sup>	49 <sup>b</sup>	199 <sup>b</sup>	35 <sup>b</sup>	164 <sup>bc</sup>
전북	973 <sup>bcd</sup>	936 <sup>bcd</sup>	38 <sup>b</sup>	195 <sup>b</sup>	125 <sup>a</sup>	70 <sup>cd</sup>
전남	699 <sup>d</sup>	669 <sup>d</sup>	30 <sup>b</sup>	71 <sup>c</sup>	23 <sup>b</sup>	48 <sup>d</sup>
경북	815 <sup>cd</sup>	775 <sup>cd</sup>	40 <sup>b</sup>	108 <sup>bc</sup>	16 <sup>b</sup>	92 <sup>bcd</sup>
경남	734 <sup>cd</sup>	690 <sup>cd</sup>	44 <sup>b</sup>	163 <sup>bc</sup>	42 <sup>b</sup>	122 <sup>bcd</sup>
제주	1,797 <sup>a</sup>	1,657 <sup>a</sup>	140 <sup>a</sup>	203 <sup>b</sup>	15 <sup>b</sup>	188 <sup>b</sup>
F값(prob)	5.92(0.0001)	5.56(0.0001)	3.48(0.0005)	14.66(0.0001)	4.85(0.0001)	16.06(0.0001)
충남순위	7	7	2	4	5	4
최대	1,797	1,657	140	476	125	420
최소	699	669	30	66	15	43

<부표 7> 지역별 농가의 가계지출

(단위: 만원)

구분	농가가계지출	소비지출	비소비지출
전체	3,030	2,451	579
경기	3,694 <sup>a</sup>	2,986 <sup>a</sup>	708 <sup>b</sup>
강원	2,927 <sup>b</sup>	2,413 <sup>b</sup>	514 <sup>c</sup>
충북	2,788 <sup>b</sup>	2,259 <sup>b</sup>	528 <sup>c</sup>
충남	2,849 <sup>b</sup>	2,323 <sup>b</sup>	526 <sup>c</sup>
전북	2,846 <sup>b</sup>	2,298 <sup>b</sup>	548 <sup>c</sup>
전남	2,717 <sup>b</sup>	2,211 <sup>b</sup>	506 <sup>c</sup>
경북	2,917 <sup>b</sup>	2,369 <sup>b</sup>	548 <sup>c</sup>
경남	3,064 <sup>b</sup>	2,456 <sup>b</sup>	608 <sup>bc</sup>
제주	4,033 <sup>a</sup>	3,080 <sup>a</sup>	953 <sup>a</sup>
F값(prob)	10.03(0.0001)	9.33(0.0001)	7.60(0.0001)
충남순위	6	6	7
최대	4,033	3,080	953
최소	2,717	2,211	506

<부표 8> 지역별 농가의 자산 및 부채

(단위: 만원)

구분	농가자산	농가부채		농업용	가계용	겸업가계용
		고정자산	유동자산			
전체	43,146	33,851	9,294	2,542	1,176	705
경기	83,618 <sup>a</sup>	73,533 <sup>a</sup>	10,085 <sup>b</sup>	4,565 <sup>b</sup>	1,262 <sup>b</sup>	1,342 <sup>a</sup>
강원	43,894 <sup>c</sup>	34,696 <sup>bc</sup>	9,198 <sup>b</sup>	1,992 <sup>c</sup>	759 <sup>b</sup>	425 <sup>b</sup>
충북	32,814 <sup>cde</sup>	23,891 <sup>def</sup>	8,922 <sup>b</sup>	1,252 <sup>c</sup>	660 <sup>b</sup>	421 <sup>b</sup>
충남	39,421 <sup>cd</sup>	30,774 <sup>bode</sup>	8,647 <sup>b</sup>	2,167 <sup>c</sup>	784 <sup>b</sup>	818 <sup>b</sup>
전북	30,894 <sup>de</sup>	20,696 <sup>ef</sup>	10,198 <sup>b</sup>	2,490 <sup>c</sup>	1,517 <sup>b</sup>	608 <sup>b</sup>
전남	26,941 <sup>e</sup>	19,045 <sup>f</sup>	7,896 <sup>b</sup>	2,358 <sup>c</sup>	1,133 <sup>b</sup>	440 <sup>b</sup>
경북	36,761 <sup>cde</sup>	27,491 <sup>cdef</sup>	9,270 <sup>b</sup>	1,753 <sup>c</sup>	1,068 <sup>b</sup>	498 <sup>b</sup>
경남	41,636 <sup>cd</sup>	33,152 <sup>bcd</sup>	8,484 <sup>b</sup>	2,173 <sup>c</sup>	1,135 <sup>b</sup>	645 <sup>b</sup>
제주	54,358 <sup>b</sup>	38,823 <sup>b</sup>	15,535 <sup>a</sup>	6,185 <sup>a</sup>	4,222 <sup>a</sup>	1,558 <sup>a</sup>
F값(prob)	2971(0000)	3353(0000)	477(0000)	843(0000)	605(0000)	463(0000)
충남순위	5	5	7	6	7	3
최대	83,618	73,533	15,535	6,185	4,222	1,558
최소	26,941	19,045	7,896	1,252	660	421